## 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뇰의 2019년 7월 12 일 메시지

미국과 캐나다 사목 방문 여정 안에 있는 오푸스데이 단장 페 르난도 오카리스 몬시뇰은 성 인들의 통공이 우리들에게 힘 의 원천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어디에 있던 다른 사람들을 도 와줄 수 있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 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 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빕니다!

로마를 떠나고 요즘 며칠 동안, 저는 성인들의 통공의 경이로움에 우리 주 님께 특히 감사했습니다. 믿음의 확 신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 으로 가까이 있지 않을지라도 서로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.

어딘가를 도착할 때 우리 모두는 언제나 서로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고 동일하게 그 장소를 떠날 때에도 일 어납니다. 잘 있으라는 헤어짐의 인 사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.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집에 있고 항상 일을 수행하 며 우리가 어디에 있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회를 섬깁니다. 또한 시련의 순간 속에서도, 우리를 친밀하게 일치시킨 현실로부터 힘을 받습니다.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그 리스도와의 결합의 결과입니다.

저는 호세마리아 성인께서 온두라스 영사관에서 쓴 글을 회상합니다. 그 당시에 성인께서는 어딘가를 가는 것 이 너무 힘드셨을 때입니다. "저는 언 제나 물리적으로 현재해 있는 장소에 서 몇 백 마일 떨어져있습니 다." (1937년 4월 30일) 성인께서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들 에게도 가까이 일치되어 계셨다는 것 을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.

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내는 여정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와 즐거움의 후 원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 습니다. 저 역시 여러분 모두와 동행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특히 미사 성 제 안에서 날마다 서로 가까이에 있 습니다. 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뉴욕, 2019년 7월12일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opuseudei-danjangmonsinyolyi-2019nyeon-7weol-12il/ (2025-12-11)